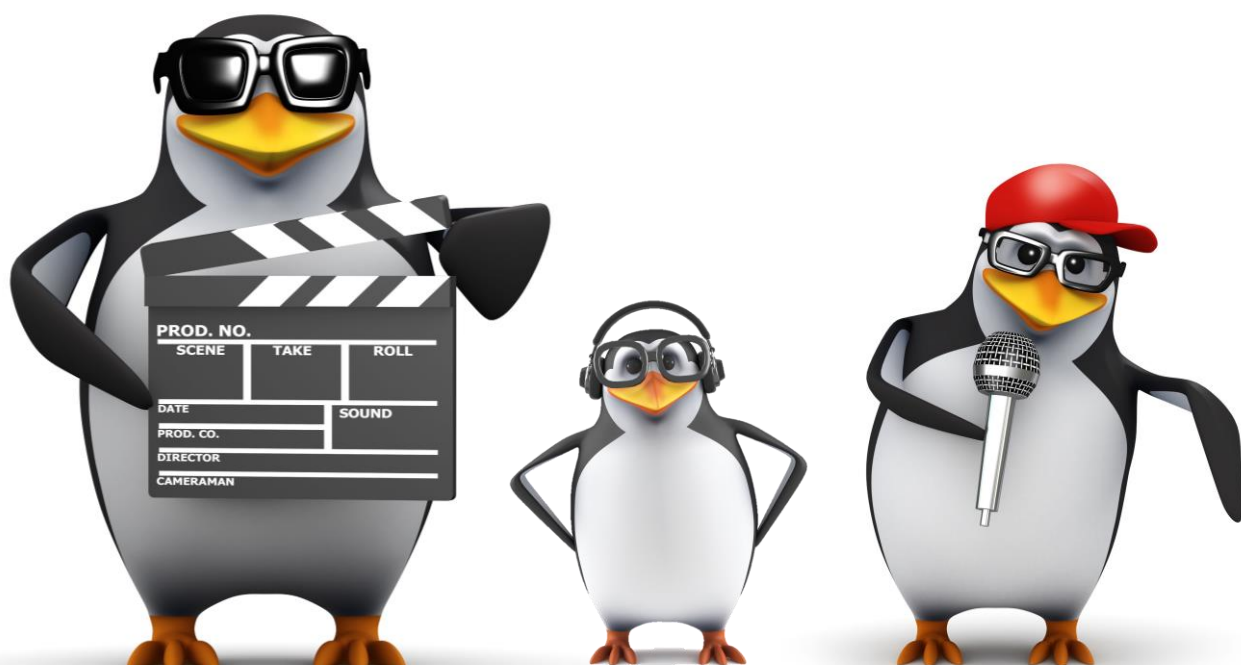


[정규과정]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전략

주제 : 최신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최신 동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튜터 김신정

최신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정규과정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전략>에서 소개된 전략과 현황 중
현재 시점에서 달라진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 3D 팝업 애니메이션

3D 기술이 발전하면서 2000년대 후반에는 3D 영화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2009년 영화 <아바타>가 개봉하면서 많은 3D 영화들이 뒤를 이었으며,
2012년 개봉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와 같이 수작도 탄생하였으나
2019년 현재 3D 영화 산업은 활력을 잃었다.

여러 분석이 있지만, 관객이 안경의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3D 영화가 혁신적이고
새롭게 다가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D 영상기술과 영화 속 연출 감각의
부조화가 관객들의 이탈을 가속시켰다. 3D 영화가 유행하면서 스토리와 영상의 구도,
인물 배치 등을 3D에 맞추어 연출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몇몇 화면만 분리시킨
3D 영화가 다수 개봉했던 것이다.





이에 3D 영화 상영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3D 팝업 애니메이션 또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 2011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 Tangled>의 경우 단순히 화려하고 현란한 장면이 아닌 아름답고 매력적인 장면을 3D 팝업으로 구사함으로써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라푼젤의 길고 섬세한 머리카락 또한 3D 팝업 애니메이션에 적합했다.

하지만 <라푼젤>의 흥행 수익은 평이한 수준이었다. 현재도 많은 관객들이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을 일반상영관에서 관람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3D 팝업 애니메이션 자체의 기대 수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애니메이션 속 여성 캐릭터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라푼젤>에서 공주는 성을 뛰쳐나왔고, 엔딩에서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2014년 개봉해 전 세계를 휩쓴 <겨울왕국 Frozen>에서는 아예 남자주인공 캐릭터를 비틀어 변절자로 설정하였으며 강한 여주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엔딩을 선보였다.



이러한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의 발전은 얼마 전 개봉한 <주먹왕랄프2 Ralph Breaks the Internet>에서 정점을 찍었다. 현명한 여자주인공을 구해주는 것은 더 이상 왕자가 아니며,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디즈니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주들을 등장시켜 셀프 패러디를 시전한다. 이는 드림웍스가 <슈렉> 시리즈에서 시도했던 것을 디즈니가 차용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디즈니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최신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최신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은 기존 설화와 민담에 여전히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15년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캐릭터로 표현하여 심리학적 이슈를 다뤘고, 2018년 개봉한 <코코>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모험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2016년 개봉해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주토피아>는 동물들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다인종사회에 대한 성찰을 녹여내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드래곤과의 특별한 우정으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던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 또한 3편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다.

그 외에도 <레고 무비> 시리즈, <스파이더 맨:뉴 유니버스> 등 헐리우드에서는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참고자료 및 출처>

3D 영화는 왜 발전이 멈춰버렸을까? <http://catchrod.tistory.com/1048>
[치우네 극장] 라푼젤, 3D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새로운 방법 <http://chiwooasis.tistory.com/2>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
다음 영화 <http://move.daum.net>